오대산 향기

2563 | 2019 3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五臺山 月精寺

佛紀2563년 부처님오신날

연등공양을 올리세요

부처님께 바치는 이 작은 등불 하나가
부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등불되게 하시고
부처님께 바치는 이 작은 등불, 등불이 모여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고
우리의 지극한 소원이 담긴 정성스러운 연등을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립니다.

인등(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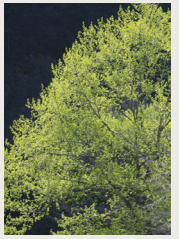
적광전 1년 : 240,000원
삼성각 1년 : 120,000원
* **납부방법 :** 일시 납부, 매월 납부, 자동이체

연등(가족 일년등)

중앙등 500,000원 **삼성각** 150,000원
적광전 150,000원 **수광전 영가등** 100,000원

계좌번호. 농협, 313065-55-000014, 예금주 : 월정사
문의. 원주실, 033. 339. 6600~1

불기 2563년 3



표지사진 오대산에 자생하고 있는 물황철나무

발행일 불기2563(2019)년 2월 28일
발행인 퇴우 정념
주간 자현
편집 디자인 daboDESIGN
출력인쇄 (주)애드삽컴퍼니
발행처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8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등록번호 평창, 라 00004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월정사의 서면화된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02 **주지 스님 법문**
흡흡무심용洽洽無心用 하라

06 **탄허스님 방산굴 법어**
대중법어大衆法語
- 불교의 生死觀

10 **오대산을 가다 ㉜**
오대산사고와 사명당의 발자취
| 자현스님

15 **오대산 구전동화**
할아버지 스님의 옛날얘기
- 수심결修心訣 이야기 2 | 정진희

21 **출가학교_다녀왔습니다**
묘한 인연입니다 | 상엄스님/용행_27기

26 **오대광명탑 불보살상 조성 불사**

28 **갤러리_월정사 읽기**
신년하례법회와 신도화합 한마당 윷놀이

31 **사중소식**

흡흡무심용洽洽無心用 하라

퇴우 **정념** 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설 하루전날이 입춘이었는데 설은 입춘과 함께 들어오게 되니 그걸 정월로 삼았는데 올해는 설 하루 전날이였습니다.

일년지계재우춘一年之計在于春 일일지계재우신一日之計在于晨이라, 일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올 한해 계획은 잘 세우셨습니까?

아침에 전나무숲길을 포행하는데 새로 만들어진 순환로를 통해 주차장 쪽으로 올라오다보니 버들개비가 눈에 띄는데 며칠 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다 보니 아직 제대로 꽃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남쪽에 매화가 피었다는데 요즘은 온난화로 인해 겨울이 자꾸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구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인류가 이제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구 온난화는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구가 몸살을 앓아 혹한, 혹서가 나타나고 허리케인을 더 강하게 일으키며, 빙하의 얼음도 녹아내리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지어서 만든 공업共業의 결과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로 편리해진 그 이면에 자연을 아끼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온 과보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근이나 삼재팔난 때문에 평균수명이 40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남자가 80세, 여자는 83세로 평균나이가 되어 중병이나 불의의 사고가 아니면 누구라도 90세 가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자식을 통해 자기 DNA를 영속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생명의 본능 속에 굉장히 강하게 입력이 되어 그걸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올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환경 속에서 진화를 거듭하며 오래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 왔는데 지금은 생명공학의 발달로 아예 질병의 원인을 가진 유전인자를 제거한 맞춤형 아기를 탄생시켰습니다. 동물들까지는 복제했지만 사람은 우주에서 가장 복잡다단한 존재이고 생명윤리의 위반이라는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중국에서 복제를 하고 세상에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불치병을 치료하는 것, 오래 살게 만드는 것, 건강하고 영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 등 사람들이 희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준 셈입니다.

우리가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을 하는데 오복은 보통 수壽·부富·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을 말하는데 첫째를 장수로 꼽을 만큼 오래 사는 것을 사람들은 바랍니다. 유호덕이란 겸손하고 겸양하면서 덕스럽게 베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 있으면 덕을 베풀어야 하고 또 덕을 베풀어야 부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가지고만 있으면 부로서의 의미도 없고 덕을 만들어내지 않는 부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 방에 부유만덕富有萬德이라는 글귀가 걸려 있는데 사회에 공헌하고 나눔의 덕성을 가질 수 있어야 부의 진정한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들이 말씀하신 자비와 사랑과 생명존중을 통해

그 속에서 자기와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체득해서 바르게 보니 세상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연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인연법을 잘 아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연기법緣起法, 연기법을 범어로 쁘라띠사뭔빠다라고 하는데 그건 조건에 의한 발생으로 항상 의지하고 관계 지어져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바로 알게 되면 나라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에고(ego)라는 건 자기 중심의 생각이고, 자기라는 자체가 알고 보면 전부 연결된 관계성의 망속에서의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대상들이 모두 동체심으로 전부 나와 관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의 태양, 공기, 땅, 나무, 곡식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애써서 농사를 지어야 내 입에 곡식이 들어오고 내가 살아갑니다. 쌀 한 톨에 우주의 모든 섭리가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오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인간칠십고래회人間七十古來稀라 칠십 넘기는 사람이 희유하다 했는데 지금은 인생은 칠십부터라고 합니다. 제 은사이신 만화스님은 64세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은사스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 노스님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나이가 되었는데 마음이 늙지 않았는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발백비심백髮白非心白 머리는 백발이지만 마음은 희지 않았다고
고인증루설古人曾漏洩 옛 사람이 일찍이 말했네.
금문일성계今聞一聲鷄 지금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장부능사필丈夫能事畢 장부의 해야 할 일을 능히 마쳤네.

서산대사께서 오도송에 남기신 말씀처럼 그 이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몇 십 년 더 살았다 하지만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죽음과 삶이 둘이 아닌 그 마음의 자리를 알게 되면 그게 무루복無漏福을 받은 것입니다.

옛날 선지식들은 생사 없는 이치를 알아서 그걸 바로 쓰셨습니다. 그러니 장작더미위에 좌정하고 불 붙여 태연히 가시기도 하고, 오늘이 며칠이냐 물어보고 가야겠다며 떠난 분도 계시고, 문답을 하다가 가신 보조국사나 계시고, 피난가는 것을 거절하고 상원사를 지켜낸 뒤 좌탈입망으로 가신 한암스님도 계셨습니다. 선지식들은 이렇게 생사 없는 이치를 바로 알아 홀연히 입던 옷 벗고 새 옷 갈아입는 것처럼 생사를 자유자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라 마음이 일어난 근원의 자리를 알아 본래 빈 마음의 자리, 무심의 자리로 돌아가면 흡흡무심용洽洽無心用이라 거기서 묘용이 생겨 길흉화복이 모두 묘용 속에서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정초라 더 많은 소구소망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간절함이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몰록 한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가슴도 시원해지고 인생의 어깨에 짊어진 짐의 무게도 가볍게 느껴지면서 부처님과 통하고 세상의 만법과 짝을 이루어 가피의 기운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무고하며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성불하십시오.

大衆法語

불교의 生死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삶과 죽음일 것이다. 즉 생사生死 문제야말로 그 무엇보다 앞선 궁극적인,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 기필코 풀어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가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 불교에서는 생사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 즉 마음에는 생사가 없다心無生死고. 다시 말하면, 마음이란 나온 곳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 또한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연히 갈파한 것을 '도통道通했다'고 말한다.

우리 자신의 어디든 찾아보라. 마음이 나온(生) 구멍이 있는지. 따라서 나온 구멍이 없으므로 죽는 구멍도 없다. 그러니까 도道가 철저히 깊은 사람은 이 조그만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중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도 천 년 만 년 살고 싶어한다. 도인道人·성인聖人은 굳이 오래 살려고 하지 않는다. 죽는 것을 헌 옷 벗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굳이 때묻은 옷을 오래 입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것은 중생들의 우견愚見일 따름이다.

도를 통한 사람은 몸뚱아리를 그림자로밖에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간밤에 꿈을 꾼 것이나 같다고 할까. 꿈을 깨고 나면 꿈 속에서 무슨 일인가 분명히 있었긴 있었으나 헛것에 불과하듯 삶도 그렇게 본다. 그러므로 굳이 이 육신을 오래 가지고 있으려 하지 않는다. 벗으려고 들면 향 한 대 피워 놓고 향 타기 전에 마음대로 갈(죽음)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존재에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이 있고, 육체에는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있으며, 일년에 춘하추동春夏秋冬이 있고, 또 우주세계는 일었다가 없어짐成住壞空이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도인道人에게는 생사가 없다. 혹자는 '그 도인도 죽는데 어찌 생사가 없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겉만 보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옷 벗는 것을 보고 죽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옷'을 자기 '몸'으로 안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렇다면 도인이나 성인은 무엇을 자기 몸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몸 밖의 몸, 육신 밖의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 좀 어렵게 말하면 시공時空이 끊어진 자리, 그걸 자기 몸으로 안다. 시공時空이 끊어진 자리란 죽으나 사나 똑같은 자리, 이 몸을 벗으나 안 벗으나 똑같은 자리, 우주 생기기 전의 시공이 끊어진 자리, 생사가 붙지 않는 자리란 뜻이다.

부처님은 바로 이 '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오셨다. 이 세상의 삶이 '꿈'이란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우리는 꿈 속에서 덥고 춥고 괴로운 경험 등을 했을 것이다. 꿈

을 꾸고 있는 이 육신이 한 점도 안 되는 공간에 누워, 또 10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몇백 년을 산다. 우주의 주체가 '나我'이기 때문이다. 바로 '내'가 우주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우주 속에서 내가 나온 것이 아닌 것이다.

세간世間의 어리석은 이들은 꿈만 꿈인 줄 안다. 현실, 이것도 꿈이다. 하지만 중생들은 꿈인 줄 모른다. 다시 말하거니와 성인이 깨쳤다는 것은 이 현실을 간밤의 꿈으로 보아버린 걸 말한다.

우리는 꿈만 꿈이라고 생각할 뿐, 이 현실은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몇백 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싶어서 아등바등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성인의 눈엔 현실이 바로 꿈이다. 즉 환상이니까 집착이 없다. 그러므로 천당 지옥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정도로 말해 놓고 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고 본다면 영원할 수도 있고 찰나라고 본다면 찰나일 수 있을 것이다. 좀 수긍이 될지 모르겠다. 요컨대, 우주 창조주 즉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우주 생기기 전의 면목을 타파한 걸 '하느님'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이란 하늘 어느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어떤 실재적인 인물이 아니다. 이 말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내 얘기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 한반도에 태어난 젊은이라면 3천만, 5천만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즉 나 하나의 잘못은 3천만, 5천만 명에게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중에 어른이 되어 무슨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준비를 갖추며 살 일이다. 청년은 그런 자신을 길러야 한다.

한암 대종사(1876~1951)

한암 대종사 68주기 추모다례재 봉행

일 시 : 佛紀 2563(2019)년 3월 20일 오전 10시
장 소 : 월정사 적광전
문 의 : 원주실 033. 339. 6600~1

한암스님 우리 모두에게 그리운 스승의 이름입니다.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三春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

문수보살과 동계올림픽의 터전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

오대산사고와 사명당의 발자취

자현 스님

① 영감사靈鑑寺와 오대산사고

사적 제37호로 지정되어 있는 오대산사고는, 인진왜란의 수습과정에서 사명당의 건의에 의해 1606년 영감암 자리에 설치된다. 원래 오대산사고의 위치로 가장 먼저 대두된 곳은, 강원감사 윤수민이 주장한 상원사였다.

사고의 설치는 숭유억불이라는 조선의 상황에서, 오대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사고가 설치된 이후 오대산은 조선의 불교비판 속에서도 큰 문제없이 유지되며, 주변의 40리가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조선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고의 설치가 오대산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유서 깊은 상원사 자리에 사고를 건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변경된 장소가 바로 영감암 자리이다.

사명당이 영감암에 주석하면서 월정사를 중건했고, 또 영감암의 인근에 종봉암을 창건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때 사고지를 바꾼 인물은 사명당이라고 하겠다. 즉 사명당은 사고의 설치와 관련해, 사라질 수 있었던 상원사를 위기에서 구원했던 것이다.

사명당이 지정한 오대산사고는 일반적으로 연화반개형蓮花半開形의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연화반개형이란, 연꽃이 반쯤 펴서 연잎이 주변의 씨방을 감싸 안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오대산사고의 지세가 바로 이와 같은 명당인 것이다.

오대산사고는 2층 구조로 된 2동의 건물로 되어 있다. 앞쪽에는 『실록』과 『의궤』를 모신 사각史閣이 위치하고 있으며, 뒤쪽에는 왕실의 족보와 물품이 봉안된 선원보각璿源譜閣이 들어서 있다. 이 중 보다 중요한 명당은 뒤쪽의 선원보각자리이다. 이는 왕조국가에서는 왕가가 국가기록물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즉 왕가와 관련된 선원보각이 더 핵심적인 명당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 사각과 선원보각이 2층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종이로 된 기록물이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습기제거와 관련해서는 지반공사에 습기를 흡수할 수 있는 처리를 한 부분도 존재한다.

오대산사고는 국가와 관련된 주요한 시설이다. 그러므로 사고 주위로는 돌담을 쌓아 이곳이 성역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산짐승의 피해나 사소한 화재 등의 문제도 해결해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사고의 앞쪽에는 성스러운 장소에 대한 기념문인 홍살문을 건립했는데, 이 모습은 (전傳)김홍도의 〈금강사군첩金剛四郡帖-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② 오대산사고를 지키는 수직사守直寺

사고가 건립되면서, 사고 주변에는 사고 안의 국가기록물을 보존하고 관

리하는 인력들이 배치된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건립되는 사찰이 바로 수직사이다. 수직사의 위치는 현재 사고지에 인접한 아래쪽의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하는 공간이다.

수직사에는 승려와 담당관리가 거주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사고의 창문을 열고 닫아 항온항습이 되도록 했다. 현대박물관의 항온항습기능이 자동화기계에 따른 것이라면, 과거의 사고는 수동식으로 수백 년에 걸쳐서 대를 이어 이 작업을 지속했던 것이다.

수직사에 속한 이들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바로 포쇄曝曬 이다. 포쇄는 사고 안의 책들을 주기적으로 꺼내서, 햇볕과 바람에 말리는 작업이다. 책의 특성상 화재나 수재와 같은 대대적인 재난이 아닌 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습기에 의한 곰팡이와 좀벌레 등의 문제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햇빛 소독이라고 할 수 있는 포쇄를 하는 것이다. 요즘으로 치면 박물관의 훈증소독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③ 현대의 영감난야靈鑑蘭若와 사고사

오늘날 오대산사고에 가보면, 그 위로 영감난야 즉 영감암이 들어서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사고 같은 국가중요건물 위쪽에, 사찰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영감난야는 최근의 건축이라는 말이다.

영감난야는 1961년 비구니 뇌묵雷默스님이 새롭게 건립한 사찰이다. 일제강점기에 오대산의 사고는, 일본인들에 의해서 유린되어 『실록』과 『의궤』는 일본으로 반출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속살을 빼앗기고 껍질만 남은 사고 역시, 1.4후퇴 때 아군들에 의해서 전소되는 비운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뇌묵스님이, 폐허 뒤쪽에 건립한 사찰이 바로 옛 이름을 다시 사용한 영감암인 것이다.

오대산사고가 현대와 같은 모습으로 재건된 것은 1989년의 일이다. 즉 영감암은 사고가 들어설 때 절터를 내주고, 사고가 사라진 후에는 먼저 건축되어 근 30년 가까이나 사고지를 지켜낸 것이다.

영감암의 영감靈鑑은 신령한 거울이라는 의미로, 이는 우리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본성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또 영감난야라고 할 때의 난야蘭若는, 인도어 아란야araṇya의 줄임말로 청정한 수행처라는 의미이다. 즉 인간의 본성을 찾는 선수행의 청정한 수행처가 바로 영감난야인 것이다.

또 영감암은 사고사라고도 하는데, 이는 사고지에 함께 위치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그러나 불교적으로는, 사고사보다는 영감암이나 영감난야가 훨씬 종교적이며 품격 있는 이름이다. 또 사고사라는 발음은, 자칫 불길한 사고사事故死와도 통할 수 있으니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현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 교무국장, 조계종 교육아사리, 불교신문 논설위원, 울산 연평선원 원장, 월정사 부산포교원 원장,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등을 맡고 있다. 율장, 건축, 선불교, 한국 고대사 연구로 4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진 등재지에 120여 편의 논문을 수록했고, 3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월정사 템플스테이

모든 생명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모든 생명이 번민에서 벗어나길
모든 생명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모든 존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모든 존재가 번민에서 벗어나길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주말 체험형 프로그램 한국의 전통문화와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

상시 휴식형 프로그램 일상에서 벗어나 사찰에서 머물며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문의전화. 033-339-6606
http://woljeongsa.org/templestay

할아버지 스님의 옛날얘기

수심결修心訣 이야기 2

정진희

깨달으면 초능력이 생기나요?

한암 스님

오대산 학이라 불리웠던 한암 할아버지 큰스님이 어린 시절, 첫 번째 발심發心을 일으킨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수심결修心訣 이야기가 점점 더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어쩜 그렇게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을 적은 책이 있는지!

진짜로 궁금했거든요, 눈에도 안 보이는 불성이 대체 어디 있는 걸까? 큰 스님들처럼 뭔가 깨달으면, 슈퍼 히어로들처럼 초능력이 생기는 걸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제 궁금한 눈빛을 읽으신 걸까요? 할아버지 스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 중 하나를 들려주랴?"

"네!"

"제일 궁금한 게 무엇이냐?"

"음... 깨달으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하하하, 솔직해서 좋구나! 그래, 초능력이 무엇인데?"

"있잖아요~ 손바닥에서 바람이 일어난다든가, 손오공처럼 하늘을 날아

간다든가, 미래의 일을 알아맞혀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도와주는거요~ 슈퍼맨처럼!"

"하하하, 내가 비밀 하나를 알려주랴?"

"뭔데요?

"귓속말 오대산에는 깨달은 스님들이 많아서, 밤마다 하늘을 붕붕 날아다닌단다. 월명이 넌 자느라 못 봤지?"

"예?! 정말요?"

갑자기 꿀밤이 날아왔어요! 아얏!

"욘석아! 깨달았다고 신통력이나 부리고 다니면 그게 진짜 깨달은 것이더냐!"

"아파요, 스님! 칫, 깨달으면 저 같은 보통사람이랑 달라지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는데 뭐 하러 깨달아요?"

문여언견성問汝言見性,약진견성若眞見性, 즉시성인卽是聖人, 응현신통변화應現神通變化, 여인유수與人有殊, 하고금시수심지배何故今時修心之輩, 무유일인無有一人, 발현신통변화야發現神通變化耶 :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견성見性이 진짜 견성이라면, 견성하는 즉시 성인이 되어 신통변화를 나타내서 보통 사람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요즈음 마음 닦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통변화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습니까?

보조국사 지눌스님 진영

"지눌 스님이 쓰신 수심결에도 너와 똑같은 질문을 한 어리석고 순수한 녀석이 있었단다. 스님이 뭐라 답하셨는지 궁금하냐?"

"와! 제가 수 백 년 전 사람과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요? 신기해요! 지눌 스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미친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 하셨지! 사악한 것과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는 미혹에 빠진 사람이니..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마음은 뒤로 빠질 궁리만 해서 오히려 성인에 이르는 것은 내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의심하느라 견성이 막혀있는 것이다.

답여불득경발광언答汝不得輕發狂言, 불분사정不分邪正, 시위미도지인是爲迷倒之人

금시학도지인今是學道之人, 구담진리口談眞理, 심생퇴굴心生退屈, 반타무분지실자返墮無分之失者, 개여소의皆汝所疑

도를 공부하면서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도 하지 못하면서 시농술이나 생각한다면 수행을 하는 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자기 자신만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학도이불지선후學道而不知先後, 설리이불분본말자說理而不分本末者, 시명사견是名邪見, 불명수학不名修學, 비유자오非唯自誤, 겸역오타兼亦誤他, 기가불신여其可不愼歟

대개 도를 닦는 방법은 단박에 깨닫는 '돈오頓悟' 와 점진적으로 갈고 닦는 '점수漸修'가 있는데, 과거의 모든 성인들도 먼저 깨닫고 난 뒤에도 갈고 닦아서 각자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돈오 먼저 하고 점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씀하셨단다.

물론 신통력은 생긴다고 하셨다. 깨달은 후에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수행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깨달았다고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란다."

즉이차則而此, 돈점양문敦漸兩門, 시천성궤철야是千聖軌轍也, 즉종상제성則從上諸聖, 막불선오후수莫不先悟後修, 인수내증因修乃證, 소언신통변화所言神通變化, 의오이수依悟而修, 점훈소현漸熏所現, 비위오시非謂悟時, 즉발현야卽發現也

"그렇구나~"

"얼어 있는 연못이 원래는 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햇빛이 비추고 얼음이 녹아야 물로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깨

닫기 위해서는 자신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법진리의 힘을 빌려서 공부하고 수행하며 닦아야만 실제로 부처가 되는 것이라는 말과 같은 거란다. 초능력을 바라는 마음같이 망령된 마음이 사라져야 진짜 마음이 신통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하셨지.

어리석은 무리들은 '한 번 깨달으면 그 즉시 끝없는 신묘함과 신통력이 나타난다' 고도 말하지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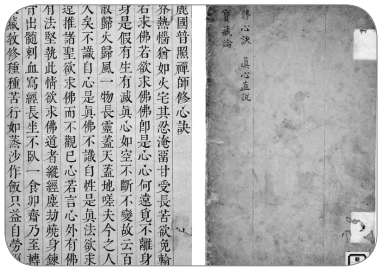
꽃이 져야 할 때에 꽃이 피게 만든다거나,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린다면... 오히려 요사스럽고 세상 흐름에 반하는 일이지 않겠니? 그래서 진짜 돈오깨닫고 점수점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신통력이 생겨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보통사람들은 진리에 이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단다."

할아버지 스님 말씀은 어려웠지만, 어렴풋이 이해가 될 것도 같았어요. 그런데 한 편으론, 짓궂은 질문이 몽실몽실 떠오르더라고요?

"스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깨닫고 갈고 닦으면서 수행하면 신통력이 생기긴 하는 거네요? 와! 그럼 먼저 깨달은 다음에 수행해야 하는 거니까.... 저 그것부터 해보고 싶어요, 스님!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오호라~ 월명아, 깨닫고 싶으냐? 그럼 불성은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맞혀 보거라. 그럼 깨달음의 기틀은 잡은 것이란다."

"불성이 어디에 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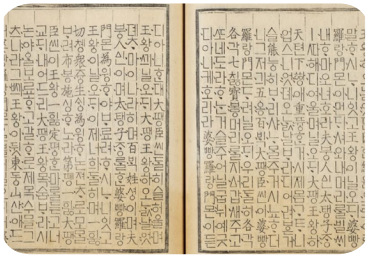
보조국사 지눌스님이 지은 수심결의 표지와 내용

꿀밤이 또 한 대 날아왔어요! 아얏!

"숙제다 이눔아~ 하하하"

수심결修心訣 속 한 구절 - 깨달음을 밖에서 찾지 말라

애닯다,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 법인 줄 모르고 있다. 법을 구하고자 하면서도 멀리 성인들에게 미루고, 부처를 찾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


목우자수심결언해_국립중앙박물관

만약 마음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밖에 법이 있다고 굳게 고집하여 불도를 구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티끌처럼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몸을 사르고 팔을 태우며, 뼈를 부수어 골수를 내고 피를 내어 경전을 쓰며, 항상 앉아 눕지 않고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대장경을 줄줄 외고 온갖 고행을 닦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아무 보람도 없이 수고롭기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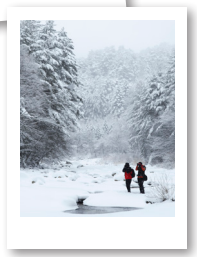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알면 수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마음을 밝힌 분들이며,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이 마음을 닦은 분들이며 미래에 배울 사람들도 또한 이 법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밖에서 찾지 말라. 마음의 바탕은 물들지 않아 본래부터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니, 그릇된 인연만 떠나면 곧 당당한 부처다.

참고자료

- 두산백과 수심결 [修心訣]
- 윤홍식, 봉황동래 출판 [윤홍식의 수심결 강의] 2007

정진희 대학에서 문예창작학을 전공하고, 19년째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다. 〈KBS 다큐공감〉 〈KBS 체인지업 도시탈출〉 〈EBS 요리비전〉 〈EBS 하나뿐인 지구〉 등에서 일했고, 책 〈대한민국 동네빵집의 비밀〉 을 출간하기도 했다. 사람 이야기와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불자로 중대사자암 삼보일배에 참가하면서 오대산과 인연이 닿았다.



제1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오대산 전국 디지털 사진 공모전

주제	**오대산의 길** **길 없는 길, 길에서 나를 만나다**
기간	2019년 5월 5일(일) ~ 9월 9일(월)
장소	오대산 (선재길, 전나무 숲길, 암자 길 등)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출품수	1인 3점까지
출품 규격	500만 화소 이상 파일 형태(JPEG. BMP, GIF, PNG, 인터넷으로 제출), 스마트폰 촬영 사진 가능
사진 등록	웹하드(www.webhard.co.kr) ID : woljeongsa2 / password : 2019
참가비	없음
접수 마감	2019년 9월 9일 월요일
입상작 발표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강원도민일보 지상 및 홈페이지(www.kado.net)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org)
시상 내역	대상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금상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 상장 및 상금 50만원 동상 – 상장 및 상금 30만원 입선 – 상장 및 기념품
문의	월정사 (☎ 033-339-6800) 강원도민일보사 사진부 및 평창지사 (☎ 033-260-9280~3, 033-332-3388)

묘한 인연입니다

상엄스님/용행_27기

눈 덮인 길 위에서 보궁까지 삼보일배를 하느라 행자복이 젖은 채로 중대 사자암 후원에서 공양을 하고 있던 31기 후배님들과 마주친 나는, 측은해진 마음과 동시에 1년 전 교육을 받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엔 이미 출가를 결심하고 있었던 터라, 과연 내가 출가자로서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있던 때였다. 일 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를 되짚어보니 '번뇌 망상에 불과한 고민이었구나.' 생각이 들어 민망한 마음에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동안 출가자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습의를 익히느라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사시예불 때며 비로전 기도를 하는 순간 젖어드는 행복감에 비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고생이라고 감히 말해본다.

물론 행복감만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 따라 출가를 하게 됨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후배님들도 좋은 인연이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어찌 해야 좋은 인연이 닿을지를 꼭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크지 않을까 싶다.

아직 사미승에 불과한 나라서 애틋한 후배님들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명확하게 알려줄 법력은 없지만, 일상 속에 깨우친 작은 글로나마 막연히 그 명확함을 대신해본다.

오대산의 삭풍이 옷자락을 여미게 하고, 축원문 뭉치를 잡은 손이 꽁꽁 얼어서 축원문을 넘기지 못할 정도의 추위 속 중대 사자암의 사시예불.

《금강경》에 맞춰 목탁을 치고 있는데 새벽예불 때 이미 들어와서 법당을 헤집듯 날아다니던 박쥐 한 마리가 전기장판 위를 살금살금 기어서 내 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눈이 마주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소스라치듯 놀란 마음에 독경은 계속 해야겠고 하여 '으흐흐….' 소리를 내며 경을 읽어 내려가기도 잠깐, 수계 교육 때 들었던 해인사 강원 강주 해월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은사스님이 《금강경》독송 중, 불안하게 여닫히던 문짝에 손이 찧어 피가 흘러도 삼매에 들어 계속 읽어 내려가셨다."

그 생각에 '그까짓 박쥐 한 마리에….' 하며 마음을 다잡아 독경을 해나가길 20여분이 지났을까. 사라진 줄 알았던 박쥐가 법당 안을 다시 날아다니자, 참배를 하고 불전함에 보시를 하던 보살님이 어간문을 열어 날아가게 해줘야겠다며 나에게 양해를 구했다. 마침 내 생각도 그러했기에 구석의 법당 문마저 열어주기로 했다. 나는 오른쪽 보살님은 왼쪽 출입문을 열어 놓았는데, 이 박쥐란 녀석이 내가 문을 열자 바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보살님이 하는 말이 "박쥐가 스님이 열어주기를 기다렸나 봅니다" 하는 것이다.

정근을 계속 하면서 나를 향하여 기어올 때의 순간과 문을 열자 바로 날아가는 순간을 가만 생각해보니, 그 보살님의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보살님은 《금강경》을 암송할 정도로 신심이 대단한 신도였다.

순간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을까' '나의 신심을 시험하려고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 박쥐는 전생에 선업을 쌓고 부처님 법을 깨치고자 하여 부처님이 계신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간 것이 아닐까?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예사롭질 않았던 그 박쥐의 까맣고 반지르르했던 모습과 반짝였던 눈을 떠올리며 다음 생에는 사람의 몸을 받아서 불법을 닦고 도를 깨달아 생사해탈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했다.

인연이란 것이 묘하고도 묘하다. 한 날 한시에 마주치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거늘, 법당에서 마주쳤던 박쥐처럼 부처님 품안에서 이 많은 인연과 맞닿아 있다는 것에 왠지 모를 미소가 지어진다. 인연에 의해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앞에 그대가 있으니 이 어찌 소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불가에 연을 맺은 것처럼, 월정사 출가학교와 연을 맺은 것처럼, 그리고 기도 중인 사자암에서 31기 행자님들과 마주친 것처럼 앞으로 또 어떤 인연과 마주칠 것인가.

전생에 선연이었든 악연이었든 모든 벽을 허물고 불법 안에서 '첫 마음으로' 만날 소중한 인연들에 미리 삼배를 올리고 싶다.

나무관세음보살

출가 체험의 모든 것

월정사출가학교

2019 월정사 출가학교 모집안내

구분	기수 및 명칭	수행일정	대상	모집인원(남녀)	수행금	비고
4월	제6기 나도청춘출가학교	04/01~04/07	55세~69세	30명	50만원	대중생활에 지장이 없는분
5월	제5기 마음출가학교	05/07~05/14	17세~60세	30명	50만원	
7월	제54기 단기출가학교	07/01~07/23	17세~60세	50명	71만원	남행자 삭발
8월	제6기 청년마음출가학교	07/31~08/06	15세~35세	30명	30만원	대중생활에 지장이 없는분
9월	제6기 마음출가학교	09/02~09/08	17세~60세	30명	50만원	
10월	제7기 나도청춘출가학교	10/07~10/13	55세~69세	30명	50만원	

※ 위 일정은 월정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 출가학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777
팩스. 033-332-6914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chulga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법회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천수경에 나오는 가장 긴 진언으로
삼보와 관세음보살님에게 귀의하여
악업을 그치고 탐욕과 노여움, 어리석음의 삼독을
소멸하여 가피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법회에 동참하시어
오만불보살님의 가피를 몸소 체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 시. 佛紀2563(2019)년 3월 16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8시)
장 소. 월정사 대법륜전
기도비. 30,000원(원주실)
문 의. 월정사 포교국 033. 339. 6616, 010-2019-5846(휴대전화)
일 정.

토요일 (오후)	08:00~09:00	주지스님 법문
	09:00~09:10	철야정진 준비
	09:10~10:20	**신묘장구대다라니**
	10:20~10:30	휴식
	10:30~11:40	**신묘장구대다라니**
	11:40~00:20	간식·휴식
일요일 (오전)	**00:20~00:50**	**묵언경행 정진**
	00:50~01:00	휴식
	01:00~02:10	**신묘장구대다라니**
	02:10~02:20	휴식
	02:20~03:40	**신묘장구대다라니**
	04:30~05:00	**새벽예불**

버스운행. 서울 – 월정사 : 조계사 앞 오후 1시 출발
월정사 – 서울 : 월정사 주차장 앞 오전 5시 10분 출발

오대광명탑 불보살상 조성 불사

월정사 모연. 목조 비로자나부처님

동참 금액. 1인 100만원

* 시주자의 이름은 명판에 새겨 오대광명탑 3층의 비로자나 부처님 복장물로 봉안하고 2층 법보전에도 걸리게 됩니다.

모연 기간. 2017년~2019년

회향 법회. 2020년 10월 예정

입금 계좌. 농협, 355-0046-4875-43, 예금주 : 월정사

동참 문의. 원주실 033. 339. 6800

오대광명탑안에 봉안할 성보물

[월정사 모연] 비로자나부처님

[상원사 모연] 석가모니부처님과 오대불보살님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미륵보살)

[중대 사자암 모연] 금니 사경한 화엄경
(봉황 은입사 함에 봉안, 비로자나불상 복장에 모십니다.)

Odaesan Meditation Village
오 대 산 자 연 명 상 마 을

명 상 법 회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옴뷔OMV는
내가 나의 삶에 선물하는 자유로운 플램폼이며,
명상으로 편안하고 자연의 기운으로 건강해지는
Healing Stay입니다.

숲에서 탄생하여 하늘로 피어오르는 고요한 땅,
사람과 자연이 바람의 빛깔로 모인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물든 모든 습관들을 지우고
행복을 담아낼 귀한 인연을 명상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쪽의 맑은 기운을 품은, 숲을 닮은 수행자!
햇빛처럼 빛나는 바로 당신입니다.

입재. 2019년 3월 9일 토요일 15시 **회향.** 2019년 3월 10일 일요일 12시

장소. 오대산 자연명상마을(OMV)

프로그램. 경청명상, 자애명상, 걷기명상, 치유요가

동참비. 1인 5만원(2인 1실 사용)

문의.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033. 333. 6500 / 월정사 종무소 033. 339. 6800

신년하례법회와 신도화합 한마당 윷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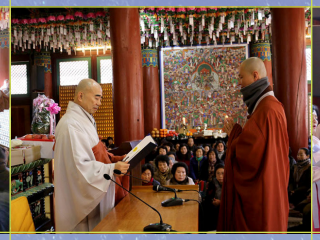
佛紀2563(2019)년 2월 9일(토) 오전 10시 30분 월정사 적광전에서 주지 퇴우 정념스님과 사중 스님, 신도회장을 비롯한 많은 신도님들과 관내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해년 신년하례법회(음 1.5)를 봉행하였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생명의 행복과 자비가 이루어지기를 발원하였으며 월정사에서는 중생제도의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 학업에 정진 중인 사중 스님 27분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신년하례법회가 끝나고 점심공양을 한 뒤 오후 12시 30분부터 대법륜전에서 신도님들과 스님들이 모두 함께 모여 "신도화합 한마당 윷놀이"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년하례법회

신년하례법회



신도화합 한마당 윷놀이

화엄오만진신 조성 불사 권선문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얻으신 직후, 3·7일 동안 깨침의 정수를 말씀하신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너무나 위대하고 경지가 높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아함경(아가마)부터 차례로 단계를 높여가며 가르침을 설해주시게 되는데 마치 현대의 4차 산업을 얘기해 주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을 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국사 급에 해당하는 대국통 자장율사께서는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서 642년 문수보살을 친견하십니다. 이때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 등의 성물聖物과 『화엄경』의 가르침을 전수 받은 뒤, 신라의 동북방에도 문수 성지가 있으니 찾으라는 부촉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귀국 후 신라에서 찾아진 곳이 바로 평창의 오대산입니다. 자장율사는 오대산 중대에 부처님의 뇌사리를 봉안하고, 월정사의 기틀을 확립합니다.

이후 태종무열왕 즉 김춘추의 손자인 제31대 신문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후 형제들 간에 왕위 계승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싫어서 덕이 있는 왕자 보천와 효명 형제는 멀리 오대산으로 은거하여 수행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오대산 중대에서 1만 문수보살을 친견하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이후 차례로 동대에서는 1만 관세음보살, 남대에서는 1만 지장보살, 서대에서는 1만 대세지보살, 북대에서는 1만 미륵보살을 뵙게 됩니다. 보천과 효명은 이들 보살님께 차 공양을 올리고 일일이 절하며 예배해 모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주에서는 신문왕의 장남인 효소왕이 실정하여, 재위 10년 만에 폐위되고 새로운 군주를 물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명의 덕행과 불보살의 가피가 알려져 귀족의 추대로 등극하는데, 이가 바로 통일신라 최대의 성군으로 평가되는 제33대 성덕대왕입니다. 성덕대왕 하면 아들과 손자가 대왕의 덕을 기려 주조한 성덕대왕신종, 즉 에밀레종으로 유명합니다. 또 성덕대왕의 아들로는 중국불교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평가받는 김지장(김교각)과 사천성 정중선파의 시조이자 중국에서 500나한 중 한 분으로 평가되는 정중무상스님이 있습니다.

신라와 불교의 황금기를 구가한 성덕왕은, 경주를 인구 100만의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시키는 놀랄만한 위업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고 신라가 번영을 구가하는 것이 오대산의 불보살님의 가피라고 생각하여, 재위 23년째가 되는 724년 친히 행차하여 상원사를 창건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오대산과 월정사의 대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대산불교의 발전은 국가를 흥성시키는 동시에, 오대산 5만 불보살님의 존재는 개인의 성공과 행복에 더 없는 공덕과 복덕의 가피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이성계가 오대산 중대 사자암을 자신의 원찰로 삼고, 상원사를 수륙재 사찰로 지정한 것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성종실록』 권261의 1492년 기록에는 "오대산과 금강산에 사찰이 매우 많고, 승려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즉 조선 초기까지도 오대산은 금강산과 더불어 최고의 기도 도량으로 평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런 유서 깊은 성지인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에 입각한 5만 보살의 모습을 나무로 조각하여 모시는 대불사를 단행합니다. 월정사의 적광전은 『삼국유사』 「오류성중」조에서, 신라 최고의 명당으로 평해진 유일한 장소입니다. 성덕대왕이 발복하고, 『삼국유사』에서 최고의 길지로 평가된 적광전에 모셔지는 5만 불보살님의 조성에 동참하여, 나와 가족의 성공과 행복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눈이 먼 제자 아나율의 가사를 기워주시면서, '복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보시로 큰 공덕을 만들어,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반드시 성취되는 가피와 위업을 달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5만 불보살의 위신력과 함께 하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행복으로 충만할 것이며, 작은 보시도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참 금액	1인 : 10만원 108 설판 동참금(가족) : 500만원(설판 제자 탱화에 이름을 올려 드립니다.)
회향 법회	2022년 10월
동참 문의	원주실 033. 339. 6800

사중소식

2월 2일(토)	기해년 입춘기도를 봉행하였습니다.
2월 4일(목)	기해년 설날을 맞아 적광전에서 통알을 하고 수광전에서 새해합동차례를 올렸습니다.
2월 9일(토)	월정사 적광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대법륜전에서 신도화합 한마당 윷놀이를 하였습니다.
2월 9일(토)	적광전에서 정초기도 입재 및 신중재일 화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2월 15일(금)	5기 청년마음출가 입재식을 봉행하였습니다.
2월 16일(토)	대법륜전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하였습니다.
2월 19일(화)	무술년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탄허대종사 106주년 탄신다례재를 적광전에서 봉행하였습니다.
2월 23일(토)	오대산자연명상마을에서 오대광명포살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 주소 변경, 배달 사고 등 「오대산향기」에 대한 문의 사항과 특별히 법보시를 하고 싶은 단체, 이웃이 있으시면 오대산 향기 편집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오대산 향기 법보시 안내

정기구독 법보시 금액 **1년 회원** : 2만 원 / **10년 회원 :** 20만 원

정기구독 법보시 신청 **월간 오대산 향기 편집실**

전화. 033) 339-6800 / **Fax.** 033) 332-6915

(우)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월정사 종무소

홈페이지. http://www.woljeongsa.org

법보시 신청 계좌번호 **농협 355-0019-0684-13 (예금주 : 월정사)**

3월 佛紀 2563(2019)년 오대산사 주요행사

| 오대산 적멸보궁 |

3월 7일(목) 초하루법회

| 월정사 | ☎ 033. 339. 6600

3월 11일(월) 신중재일 화엄법회
3월 14일(목) 부처님 출가일
3월 16일(토)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법회
3월 20일(수) 한암대종사 68주기 추모다례재
3월 21일(목) 부처님 열반일
3월 24일(일) 대하스님 추모다례재

| 상원사 | ☎ 033. 332. 6666

3월 7일(목) 초하루법회
3월 10일(일) 문수재일 지혜법회
3월 23일(토) 광명정진 철야법회

| 중대사자암 | ☎ 033. 333. 4729

3월 2일(토) 토요가행정진법회
3월 7일(목) 초하루법회
3월 16일(토) 미얀마 성지순례(~22일)

|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OMV | ☎ 033. 333. 6500

3월 9일(토) 명상법회
3월 23일(토) 오대광명 포살법회

매월 음력 5일, 신중재일 화엄법회에 참석합시다

| 일 시 | 佛紀 2563(2019)년 3월 1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월정사 적광전
| 기도비 | 30,000원
| 문 의 | 원주실 (033) 339 - 6600 ~ 1

Healing Stay

Odaesan Meditation Village
오 대 산 자 연 명 상 마 을

힐링 플랫폼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쉬다
먹다
놀다

OMV 옴뷔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예약문의 | T. 033)333-6500
www.omv.co.kr